

『한국사상과 문화』 제10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논문집(2019.12.31)

고대인들의 황천(皇天) 인식과 소망 성취 방식

- <구지가(龜旨歌)>를 중심으로 -

김 병 국

(건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 I. 문제 제기
- II. 수로의 황천, 구간의 황천
- III. 위협적인 어사(語詞), 소망 성취의 주가(呪歌)
- IV. 마무리

<논문요약>

이 논문은 한국 신화에 보이는 황천(皇天)에 대한 인식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과 가락(駕洛)의 시조인 수로(首露)의 탄생 과정에서 불려진 <구지가(龜旨歌)>에 “머리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위협적인 어사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성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적으로 황천의 의미는 같지만, 오늘날 하느님이 우리의 종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리 인식되듯이, 그 당시 역시 사람들은 황천을 지역에 따라 주관적으로 달리 인식했다. 그러므로 수로는 황천의 명령을 받아 외지에서 구지봉(龜旨峯)으로 들어왔으며, 수로가 구지봉 지역의 구간(九干)들에게 알려준 <구지가>라는 노래는 구지봉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구간(九干) 등이 믿고 있는 황천을 향해 불린 주술적 노래다.

<구지가>는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주술적 노래를 거북을 위협하여 구지봉 지역에 그들의 최초의 임금을 내려달라고 비는 주술적 노래(呪歌)로 변환시킨 것이다. 거북은 구지봉 지역에서 신령스러운 동물로 인식되었는데, 수로는 구간 등에게 신령스러운 거북을 위협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구지봉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황천으로 하여금 구간 등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주몽(朱蒙)의 경우와 같은데, 주몽은 금와(金蛙)가 다스리는 동부여(東扶餘)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송양의 지역에서 그와 다툼 때, 해원(蟹原)의 들에서 흰 사슴(白鹿)을 잡아 거꾸로 매달아놓고 그 흰 사슴을 위협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송양의 땅에 이레 동안 소나기를 내리게 했다. 그리고 필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우제(祈雨祭)와 관련된 설화 및 민속을 통해 그 속에 이러한 사유가 내재해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수로가 하늘로부터 알의 형태로 구지봉 지역에 내려오고 그리고 그 알에서 동자로 변하며, 십여 일 후에 구척(九尺)의 신장으로 자라서 그달 보름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이 과정은 『요사(遼史)』 ‘재생의(再生儀)’의 자료를 참고로 할 때, 수로가 구지봉 지역에 와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신성시하여 이를 제의의 통해 나타낸 것이며,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락국기〉이다.

【주제어】 구지가, 황천, 주술, 기우제, 제의, 소망성취, 위협적 어사.

I. 문제 제기

가락국(駕洛國)의 시조이면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수로(首露)의 탄생 모습은 『삼국유사』에 신이(神異)하게 묘사되어 있다.¹⁾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에 의하면 수로왕은 다른 오가야의 임금이 된 다른 왕들과 함께 구지봉(龜旨峯)에 알의 형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금합자(金合子)에 태양과 같이 둥근 황금란의 모습으로 넣어져 있었으며, 그 금합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줏빛 줄(紫繩) 끝에 붉은 보자기(紅幅)에 쌓여 있었다. 그 금합자는 다시 붉은 보자기에 싸여 아도간(我刀干)의 집 평상(楊) 위에 놓였으며, 그 후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그 금합자를 열어보니 여섯 알이 동자로 변해 있었고, 나날이 커져서 십여 일이 지나자 신장이 구척이 되어 있었으며, 그 달 보름날에 즉위하였다. 그런데, 수로왕의 탄생은 신탁(神託)에 의한 것이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A.C. 42) 3월 계육일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龜旨)²⁾에서 수상한 소리가 부르므로 백성 이삼백 명이 그 곳에 모였

-
- 1) 올 3월에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대가야 시대 소형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에서 소형 토기, 화살촉, 어린아이 두개골 편 등 유물과 함께 가야 시조가 탄생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6종이 새겨진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 1점이 출토되었다. 토제방울에 선형으로 그려진 그림은 ‘남성성기(구지봉), 거북(구지가), 관을 쓴 남자(구간), 춤을 추는 여자, 하늘을 우리러보는 사람,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금합을 담은 자루’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시조 탄생 신화는 금관가야뿐만 아니라 6가야 전체에서 공유한 신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 3. 20.)
 - 2) 『삼국유사(三國遺事)』 원문 주. 이것은 산봉우리의 이름인데 거북[十朋]이 엮드린 형상과 같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是峰巒之稱 若十朋伏之狀 故云也)

다. 사람 소리 같지만 그 모습은 숨기고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이 곳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九干)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대답해 말하기를,

“구지(龜旨)입니다.”

또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을 다스리되 오직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고 하므로 이를 위해 내려왔다. 너희들은 산꼭대기의 흙을 모으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라.’라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을 추리라.” 구간들은 그 말처럼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었다.³⁾

수로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이곳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 신이다. 신격의 차원에서 보면 <단군신화>의 단군(檀君), <주몽신화>의 주몽(朱蒙), <박혁거세신화>의 박혁거세(朴赫居世), <탈해신화>의 탈해(脫解)에 비견된다. 그리고 내려온 상황으로 보면 <단군신화>의 환웅(桓雄), <주몽신화>의 해모수(解慕漱)에 비견될 수도 있다. 환웅과 해모수 모두 하늘의 뜻으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神託)의 형식은 <수로신화>에만 보이고 있다. 나중에 수로의 부인이 되는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옥(許黃玉)도 신탁으로 가락 땅에 오게 되니, <수로신화>의 두 주인공인 수로와 허황옥은 모두 신탁에 의해 이 땅에

3)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2, 기이(紀異) 제2, 가락국기(駕洛國記),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浴之日 所居北龜旨[是峰巒之稱 若十朋伏之狀 故云也] 有殊常聲氣呼喚 衆庶二三百人 集會於此 有入人音 隱其形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爾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感欣而歌舞.

오게 된 것이다. 수로의 경우 그 신탁의 내용 중 구간 등에게 행하도록 한 것이 있으니, 바로 “너희들은 산꼭대기의 흙을 모으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면서 춤을 추어라.”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구간 등이 <구지가>를 부른 대상인 황천에 대한 인식방법과 <구지가>에 나타나는 위협적인 내용에 주목한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여기서는 임금을 내려달라는 소망)을 하늘에 빌 때, 이런 위협적인 내용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당시 고대인들의 신관(神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II. 수로의 황천(皇天), 구간의 황천(皇天)

이 <구지가>⁴⁾ 속의 ‘거북’은 실제의 거북이다. 가락국의 구간과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망인 ‘대왕(大王)’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거북을 “(만약 수로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간 등이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대상인 황천과 가까운 신령스러운 ‘거북’을 그들이 부른 <구지가>에서 위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구간(九干) 등이 <구지가>를 부르며 자신들의 대왕(首露)을 내려달

4) 필자는 일전에 <구지가>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했었다.(「구지가의 일고찰」, 『성대문학』 제26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그리고 이 논문은 필자의 저서인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월인, 2000.)에 “<구지가>의 ‘구’의 기능과 태양숭배”라는 이름으로 재수록 됨.) 기존의 논문에서는 <구지가>의 주가로서의 내적 구조(고정구조와 치환구조)를 밝혀 <구지가> 속의 거북이 실제 거북이라는 것을 규명했고, 거북이 <수로신화>에서 천신의 사신(使臣)로서 천신과 구간 등 중서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로의 일자(日子)로서의 성격과 태양숭배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황천의 의미와 황천에게 소망을 비는 주술적 노래인 <구지가>에서 황천의 사신인 거북에게 ‘구워서 먹으리.[번작이끼야(燔灼而喫也)]’라고 위협하는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라고 소원을 비는 대상은 바로 황천이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수로를 보낸 것도 역시 황천이다.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황천이 수로를 가락 지역으로 보내 이곳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라고 했는데, 수로는 구간 등을 시켜 황천의 신하인 ‘거북’⁵⁾을 위협하여 황천으로부터 그들의 대왕을 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 논리적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황천의 성격에 있다. 황천에 대한 보편적 의미는 같지만 수로를 가야 지역에 보낸 황천과 구간 등이 <구지가>를 통해 자신들의 대왕을 소원한 황천은 인식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즉, 수로가 믿는 황천과 구간 등이 믿는 황천은 다른 것이다.

이를 주몽(朱蒙)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몽은 하늘로부터 북부여에 내려온 천제자(天帝子)인 ‘해모수(解慕漱)’의 아들, 즉 천제의 손자이며, 압록강의 수신(水神)인 ‘하백(河伯)’의 외손으로 당시 해부루(解夫婁)의 아들 금와(金蛙)가 다스리던 동부여에서 하백의 장녀인 유화(柳花)로부터 알의 형태로 태어난다. 그의 능력을 시기한 금와의 아들인 대소(帶素) 등을 피해 남으로 내려가다가 엄체(淹滯)라는 강물에 이르러 건널 배가 없자 다음과 같이 하늘에 호소한다.

건너자니 배가 없고 따라오는 군사들이 닥쳐올까 두려워서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한숨짓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天帝)의 손자요 하백(河伯)의 외손자인데, 지금 피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황천과 후토(后土)는 이 외로운 사람을 살피어 속히 배와 다리를 마련하소서.” 말을 끝내고 활로 물을 치니, 자라들이 떠올라서 다리를 이루었다. 주몽(朱蒙)은 이리하여 건널 수가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 쫓는 군사가 이르렀던 것이다.⁶⁾

5) 거북을 하늘의 사자로 보는 것은 즐고 「구지가의 일고찰」, 『성대문학』 제26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참조.

6) 이규보(李奎報), <동명왕편(東明王篇)>,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欲渡無舟 恐追兵奄及 洒以策指天 慨然嘆曰 我天帝之孫 河伯之甥 今避難至此 皇天后土 憐我孤子 速致舟橋 言訖 以弓打水 魚鼈浮出成橋 朱蒙乃得渡 良久追兵至.

주몽은 황천(皇天)과 후토(后土)에게 건널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기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천은 하늘, 천제(天帝), 상제(上帝) 등과 같은 의미로 ‘하늘’ 또는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후토(后土)는 토지신을 말한다. 주몽은 자신이 천제의 손자로서 하늘에 소원을 비는데 어째서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라고 밝혔을까? 그것은 현재 주몽이 있는 곳이 북부여나 동부여 지역이 아니라 그 남쪽인 ‘엄체’라는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즉, 엄체라는 이 지역의 천신과 지신에게 소원을 빈 것이다. 같은 황천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마치 지금 각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은 것이다.

주몽은 송양(松讓)과 다룰 때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

서쪽으로 사냥 나가 흰사슴(白鹿)을 잡아서 해원(蟹原)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빌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움을 잠기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실로 너를 놓아 주지 않으리니, 이 어려움을 면하고자 한다면 너는 능히 하늘에 호소하여라.” 하였다. 그 사슴이 슬피 울어 소리가 하늘에 통하여 장마가 이레를 내려 송양(松讓)의 도움을 잠기게 하였다 왕은 갈대줄로 강을 가로질러 놓고, 오리말을 타고 있었다. 백성들은 모두가 그 줄을 붙들고 있었다. 주몽이 채찍으로 물에 금을 그으니 물이 줄었다. 유월에 송양이 온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항복하였다고들 한다.⁷⁾

주몽은 장마비로 송양의 도움을 표몰시키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흰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성취시키고 있다. 흰사슴은 천계사슴, 우주사슴 등 하늘과 연관된 ‘신령스런 동물’로 인식되

7) 이규보, <동명왕편>, 『동국이상국집』, 西狩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減 六月 松讓學國來降云云.

어 있으므로⁸⁾, 주몽은 하늘과 가까운 이 신령스런 흰사슴을 위협하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주몽의 경우에서 확인했듯이, 주몽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의 천신과 지신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하고, 그 천신과 가까운 동물을 어려움에 빠뜨려 위협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빌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가락으로 수로를 찾아온 허황옥(許黃玉)의 사례를 통해서도 지역에 따라 황천에 대해 달리 인식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왕과 왕후가 함께 침전(寢殿)에 나아가 계실 때 (왕후가) 조용히 왕께 말하되, “저는 본래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許氏)요 이름은 황옥(黃玉)으로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오월 중에 부왕이 황후와 더불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기를 ‘아버와 어미가 어제 꿈속에서 함께 황천 상제(上帝)를 뵈었는데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락국의 임금 수로라는 이는 하늘이 내려 보내어 임금이 되게 하였으니 곧 신이하고 성스러운 이가 오직 그 사람일 것이다. 또 새로 나라를 다스리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씀이 마치 귀에 남아 있는 듯하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거기로 가거라.’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로 (배를) 띄워 멀리서 췌대추(蒸棗)를 찾고 하늘에 가 멀리서 천도복숭아(蟠桃)에 다다라 이 용모(螭首)로 외람히 용안(龍顏)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⁹⁾

8) 김열규, 「동북아 맥락 속의 한국신화」,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04쪽.

9)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王與后共在御國寢 從容語王曰 妾是阿踰陀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 顧妾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帝 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俾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莅 家邦 未定匹偶 卿等湏遣公主而配之 言訖升天 形開之後 上帝之言 其猶在耳 你於此而忽辭親 向彼乎往矣 妾也浮海遐尋於蒸棗 移天復赴於蟠桃 螭首敢叨 龍顏是近.

곧 허황옥을 수로에게 보내라고 한 황천의 상제는 아유타국에서 인지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수로를 만나기 위해 가락에 처음 왔을 때 허황옥은 가야의 산령(山靈)에게 비단바지(綾袴)를 폐백 삼아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홀연히 바다 서남쪽 끝에서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며 북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다. 유천 등이 먼저 섬(망산도) 위에서 햇불을 올리고는 곧 육지로 향해 건너 내려오는데 다투어 달려왔다. …… 왕후는 산외(山外) 별포(別浦) 나무터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 높은 언덕(高嶠)에서 쉬었는데,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바지(綾袴)를 벗어 폐백 삼아 산령(山靈)에게 바쳤다.¹⁰⁾

허황옥이 아유타국에서 가락에 와서는 처음 도착한 곳에서 이곳 산령에게 자신의 비단바지를 바쳤는데, 원래 비단은 하늘에 바치는 폐백이다. 『삼국유사』 <연오랑 세오녀>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신라에 해와 달이 빛이 없어졌다. 일자(日者)가 아뢰어 말하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내려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 간 까닭에 이러한 괴이한 일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구하니 연오(延烏)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이른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일이니 이제 어떻게 돌아가리요? 비록 그렇더라도 짐의 비(妃)가 짜논 비단(細絹)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면 가하리라.” 하고 인하여 그 비단을 내렸다. 사신이 와서 아뢰므로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그런 후에 해와 달이 옛날과 같이 되었다.¹¹⁾

10)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茜旗 而指乎北 留天等 先舉火於島上 則競渡下陸 爭奔而來 …后於山外別浦津頭 維舟登陸 憩於高嶠 解所著綾袴爲贄 遺于山靈也.

11)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연오랑세오녀(延烏郎細烏女). 是時 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 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絹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에서 신라의 '일월(日月)의 정(精)'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라의 일월에 광채가 사라졌을 때, 신라인들이 연오(延烏)의 처 세오(細烏)가 짜준 비단(細絹)으로써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일월이 다시 옛날과 같이 빛을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허황옥이 가락의 산령을 통해 이곳 가락의 황천에게 자신의 정성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천에 제사지내어 하늘에 정성을 드리는 이런 사례를 해부루(解夫婁)의 경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부여왕 해부루는 늙도록 아들이 없어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 후사(後嗣)를 구했는데, 타고 있던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보고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므로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금색 개구리 형상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곧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준 것이라!" 하고는 이에 거두어 기르니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했다.¹²⁾

부루도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해모수(解慕漱)의 아들¹³⁾이니, 천제의 자손이다. 그 부루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

12) 이규보, <동명왕편>, 『동국이상국집』, 夫余王解夫婁老無子 祭山川求嗣 所御馬至鯤淵 見大石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 王曰 此天錫 我令胤乎 乃收養之 名曰金蛙.

13) 『삼국유사』 권 1, 기이 제1, 북부여, 고기에 말하기를, "전한서 천제 신작 3년 입술 4월 8일에 천제가 흘승골성(訖升骨城)에 내려왔으니 오룡거를 탔다. 도읍을 세우고 왕을 일컬으며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자칭 해모수라고 이름하였으며 아들을 낳아 부루라 이름하고 해로써 성을 삼았다."고 하였다.(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여기서는 천제를 해모수라고 하였는데, 『삼국유사』 <고구려>조와 <동명왕편>에는 천제자(天帝子) 해모수로 나온다. 이 두 기록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해모수'는 '단군'이라는 명칭처럼 일반명사로 보인다. 일연은 <고구려>조에서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의 딸과 긴밀히 친해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부루라고 한 <단군기>의 기록과 <고구려>조의 기록을 대조하여 부루와 주몽이 어미가 다른 형제라고 했는데, 이때의 단군이 해모수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이는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다. 그리고 바위 밑에서 금와(金蛙)를 얻고는 하늘이 후손을 보내준 것이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부여 지역의 산천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 자손을 내려달라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을 떠나 가락에 도착하여 가락의 산령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폐백 삼아 제사를 지낸 것은 가락을 찾은 자신의 소원(목적, 곧 수로왕과의 혼례)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산령을 통해 가락의 황천에게 기원한 것으로도 보인다.

여기서 황천의 의미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수로가 가락의 구지봉을 찾은 이유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천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을 다스리되 오직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고 하므로, 이를 위해 내려왔다. 너희들은 산꼭대기의 흙을 모으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을 추리라.” 구간들은 이 말에 따라 백성들과 함께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었다.¹⁴⁾

이 기록을 보면, 수로는 황천의 명을 받고 가락의 구지봉에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수로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니다. 그것은 수로와 구간과의 첫 대화에서 알 수 있다.

사람 소리 같지만 그 모습은 숨기고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이 곳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九干)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14)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爾等須掘峯頂掘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感欣而歌舞.

대답해 말하기를,
“구지(龜旨)입니다.”¹⁵⁾

수로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구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황천 상제의 신탁에 의해 가락에 왔듯이, 수로도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의 황천의 명령을 받고 구지로 온 것이다.

김유신은 왕경 사람이다. 12세조는 수로로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후한 건무 18년 임인에 구봉에 올라 가락 구촌을 바라보며 드디어 그 땅에 나라를 열어 부르기를 가야(加耶)라 하고 나중에 고쳐 금관국(金官國)이라 하였다.¹⁶⁾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아도 수로가 가락지역 출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로는 외부로부터 구지봉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므로 자신의 문화를 구촌의 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구지봉 지역의 황천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구촌의 구간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산꼭대기의 흙을 모으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라는 것이었다.

외부로부터 와서 그곳 문화와 통합을 이루는 사실을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가락국기, 有和人音 隱其形 而發其音曰 此有人否 九干等云 吾徒在 又曰 吾所在爲何 對云龜旨也 又曰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新家邦 爲君后 爲茲故降矣 爾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之也 九干等如其言感欣而歌舞.

16) 『삼국사기』 권 제41, 열전1, 김유신, 金庾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峯 望駕洛九村 遂至其地開國 號曰加耶 後改爲金官國.

웅녀(熊女)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아래서 축원하기를 “아이를 갖게 해주소서.” 하였다. 웅(雄)이 이에 잠깐 변해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¹⁷⁾

환웅(桓雄)은 하늘에서 천제 환인(桓因)의 명을 받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의 정상에 있는 신단수로 내려온 천제의 아들(庶子)로 천신(天神)이다. 그래서 신웅(神雄)으로도 불린다. 웅녀(熊女)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했을 때 신격(神格)이라 바로 인간인 웅녀와 결혼할 수가 없으므로 잠깐 인간으로 변한 후 웅녀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환웅이 자신 집단의 문화를 웅녀집단의 문화와 통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로의 경우라고 생각한다. 신격(神格)인 수로는 구간 등이 ‘산꼭대기의 흙을 모으고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제의를 통해 구지봉에 알의 형태로 내려와 그 알에서 동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간 등에 의해 새로운 나라인 가락의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된다. 수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알에서 동자로 태어나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이 전체의 과정은 하나의 제의(祭儀)의 과정으로 보인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보니 오직 자주색 줄(紫繩)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 아래를 찾아 이에 붉은 보자기(紅幅)에 쌓인 금합자(金合子)를 발견하였다. 그것을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알 여섯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백배했다. 다시 포대기에 싸서 안고 아도(我刀)의 집에 가서 평상 위에 놓고 무리들은 각기 흠뻑하였다. 이튿날 해 뜰 무렵(平明)에 중서(衆庶)가 다시 모여 합자(合子)를 열어보니 여섯 알(六卵)이 변하여 동자(童子)가 되었는데, 용모가 심히 위대하였다. 인하여 평상에 앉히고 중서(衆庶)가 배하(拜賀)하여 공경하기를 다하니 일월이 커졌다. 십여 일이 지나서 신장이 구척이 됨은 은(殷)의 천을(天乙)이고, 얼굴이 용(龍)과 같음은 한(漢)의 고조(高祖)이며,

17)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고조선(古朝鮮), 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눈썹의 팔채(八彩)는 당고(唐高)이고, 눈의 중동(重瞳)은 우순(虞舜)이라. 그달 보름에 즉위했다.¹⁸⁾

위의 기록에서 ‘홍복에 싸인 금합자, 황금란, 동자로의 탄생, 십여 일 후 구척이 된 신장, 즉위’의 과정은 하나의 제의적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데 『요사(遼史)』의 <재생의(再生儀)>의 기록이 도움이 된다.

...황제가 방에 들어 옷을 벗고 맨발로 동자를 따라 가랑이 진 나무(岐木)를 세 번 지나간다. 지나갈 때마다 늙은 할미인 산의(産醫)가 치사(致詞)를 드리면서 황제의 몸을 불식(拂拭)한다. 동자가 가랑이 진 나무를 일곱 번 지나가면 황제는 나무 옆에 눕는다. 한 늙은이가 화살통을 치며 말하기를, “생남이요.”라고 소리친다. 태좌(太坐)가 황제의 머리를 베로 감싸 일으키면 신하들이 경하하여 재배한다...¹⁹⁾

위의 기록은 황제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과정을 제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준다.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난 황제는 새로 부여 받은 그 ‘생생력(生生力)’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수로의 탄생 과정을 『요사』의 <재생의>처럼 제의의 과정으로 본다면 수로가 앞에서 동자로 변하고 그 십여 일 후에 구척의 신장이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로 집단은 외부에서 구지봉 지역에 와서 이들과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 수로가 이곳 황천(皇天)의 인정하에 왕위에 오르는

18)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가락국기,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裏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衆人悉皆驚喜 俱伸百拜 尋還裏著抱持而歸乃我刀家 寘榻上 其衆各散 過浹辰 翌日平明 衆庶復相聚閉舍 而六卵化爲童子 容貌甚偉 仍坐於床 衆庶拜賀 盡恭敬止 日日而大 踰十餘晨昏 身長九尺 則殷之天乙 顏如龍焉 則漢之高祖 眉之八彩 則有唐之高 眼之重瞳 則有虞之舜 其於月望日即位也
19) 『요사(遼史)』 禮志 6, 嘉義 下, <재생의(再生儀)>, ...皇帝入室 釋服跣以童子從 三過岐木之下 每過產醫媪致詞 拂拭帝躬 童子過岐木七 皇帝臥木側 叟擊箠曰「生男矣」 太坐申蒙皇帝首 興 君臣稱賀 再拜...

것이며, <가락국기>는 수로의 이러한 왕위 등극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Ⅲ. 위협적인 어사(語詞), 소망 성취의 주가(呪歌)

앞에서 살펴본 황천(皇天)의 의미를 참조하면 수로가 구지봉 지역에 와서 구간 등에게 전해준 <구지가>의 위협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로는 자신을 구지봉에 보낸 황천이 아닌 구지봉을 중심으로 한 구간 등의 황천에게 이 <구지가>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지가>에 등장하는 거북의 존재는 수로가 외부로부터 온 인물이므로 원래 구간들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지가>는 원래 기우제 때 불리던 노래의 형식인데 수로신화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맞춰 변형되어 들어간 것이다.²⁰⁾ 거북이 가락지역과 매우 친연성이 높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지봉의 황천과 매우 가까운 신령스러운 동물[황천의 사자]로 구간 등이 인식하고 있기에 이 노래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²¹⁾ 이것은 주몽이 송양의 땅에 와서 송양과 다툼을 할 때 그곳 해원(蟹原)의 들에서 잡은 흰시슴을 거꾸로 매달아 이 흰시슴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듯이, 수로는 구지봉 지역의 ‘거북’을 통해 그 ‘거북’을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이 지역의 황천으로 하여금 구간의 소망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유가 내재해

20) 졸고, 「구지가의 일고찰」, 『성대문학』 제26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참조

21) 정호완은 「가야의 지명소 ‘감(甘)-’의 의미와 분포」, (『우리말글』 제30집, 2004)에서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가야 계의 지명에서 거북신 제의는 중요한 문화적인 기초였다고 하면서 지명소 ‘감(甘)-’이 어떻게 거북을 상징하며 낙동강 수계의 지명으로 방사되어 나갔는지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

있다.

이러한 사유는 오늘날까지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데, 주로 기우제의 의식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논산 벌곡면에서 채록한 자료다.

신선바위의 기우제²²⁾

그렇게 송천이란 산이 있어. 송천. (조사자: 송천이요?) 응. 거기에 신선바위가 있어? (조사자: 신선바우요?) 응. 신선바우. 명석만 하여. (조사자: 지금도 있어요? 할머니) 시방도 있어. 커. 그러니까 신선바위가 신선이 내려와서 논다는 바우야. 말하자면 비가 안 오고 그 가물어서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면 큰 돼지를 면에서 면에서 나와가지고 그 위에서 큰 돼지를 잡아다가 가져가서 신선바위에다 찢러 가지고 피를 거기다 묻혀. 그 짝에다 그러면 그 피 씻나라고 비가 온다는 거여. 그래가지고 비- 같이 비가 오면 피가 싹 씻기잖아. 그렇가면 그 사람네가 돼지를 삶아 가지고 우리집이 크거든. 옛날집 부자였지. 우리집 크니 거 와서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가는 거여. 그 사람네가 삶아가지고 끓여갔다 차리는 음식 다 나눠먹고 동네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다 먹고 지금 있어. 시방도 신선바우. (조사자: 돼지피를 묻힌다구요?) 응. 돼지피를 거기다 묻혀. (조사자: 그 위에다 이렇게 돼지머리 같은 거 놓고 제사지내는 게 아니라 피를 묻혀요?) 제사지내지 인제. 돼지 생돼지를 이젠 잡아가지고 가져든. 그냥 돼지 몇 마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넣가지고 찢르면 이렇게 피나오잖아. 찢르면 바우에다가 피를 절절 쏟아놓잖아. 그러까면 돼지 받쳐놓고 갖은 과일같은 거 음식같은 거 맛있게 바우에다 다 차려놔. 그러문 절하고, 절하고 흐흐

논산시 벌곡면 송천의 신선바위는 신선들이 내려와서 노는 바위인데, 비가 오지 않아 가물 때 큰 돼지를 가져가서 그 바위 위에서 돼지를 찢러 그 돼지 피를 신선바위에 묻히면, 지저분해진 신선바위의 그

22)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 보고서』, 1996. [벌곡면 설화 31] T. 수락리 3 앞, 이 학술조사는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팀에 의해 1996년 8월 20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논산시 벌곡면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수락리 김봉금 씨(여, 86)가 자신의 집에서 조사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돼지 피를 씻어내기 위해 신선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벌곡면뿐만 아니라 논산 일대에서 전하고 있으며, 논산 외에도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살펴보면 기우제를 지낼 때 마을의 신과 관련된 바위나 소(연못) 산 정상에 돼지나 개를 산 채로 갖고 가서 찢어서 그 곳에 그 피를 묻히는 행위가 경남 장흥의 운주마을(개), 강원 고성외 대진 4리 (개), 경북 안동의 뒤수곡동 무실(돼지), 경북 거제 앞시방리 살방의 백여도(개) 등 여러 지역에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산신당에 제사지낼 때 물을 뜨는 우물가에 역시 돼지 피를 묻히는 이야기가 논산 지역에 전한다. 논산시 은진면에서는 다른 형식의 기우제²³⁾를 지낸다.

제주(祭主)는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을 뒷산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 밥, 나무, 과일 등을 차려 놓고 제(祭)를 올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풍장을 가지고 가서 풍장을 쳤으며 뿔감을 가져가 불을 피우기도 했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날 아녀자들은 키를 가지고서 묘진강으로 가서 까불리기도 하고 물을 몸에 뿌리기도 하면서 비가 오기를 빌었으며 돌아올 때에는 키를 위로 향하게 두 손으로 정중히 잡고 마을로 돌아왔다 한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기우제를 지낼 때 마을의 진산(鎭山)에 마을 사람들이 뿔감을 가지고 올라가 불을 피웠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산에 불을 피우면 하늘의 신(神)이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불을 끌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주시 증문마을(갈모산 기우제) 등에 드물게 보인다. 논산에는 기우제 때 마을의 결혼한 여성들만 산에 올라 정상에 소피를 보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신

23)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 보고서』, 1995. [은진면 민속 16] 이 학술조사는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팀에 의해 1995년 9월 14일부터 9월 15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와야리 김관영 씨(남, 57세)가 조사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성 장소를 훼손함으로써 하늘이 그것을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자료를 참고할 때 수로의 탄생의 과정에서 구간 등이 <구지가>를 불러 “머리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거북을 위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황천(皇天)이 자신과 가까운 거북을 살리기 위해 구지봉의 구간 등에게 임금을 내려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가 작용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래가 수로 집단이 아닌 구간 집단에 의해 불렸다는 것은 구간 집단이 수로 집단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문화의 통합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IV. 마무리

지금까지 황천(皇天)에 대한 인식과 가락의 시조인 수로(首露)의 탄생 과정에서 불려진 <구지가(龜旨歌)>에 “머리를 내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위협적인 어사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황천의 일반적 의미는 동일하지만, 오늘날 종교에 따라 ‘하느님’의 성격이 달리 인식되듯이, 그 당시 역시 지역에 따라 황천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수로는 황천의 명령으로 외부에서 구지봉 지역으로 들어온 인물로, 수로가 구간 등에게 알려준 <구지가>는 구지봉을 중심으로 한 구간 등의 황천에게 불린 주술적 노래인 것이다.

<구지가>에 거북이 등장하는 것은 수로가 소망 성취의 구조를 지닌 주가(呪歌)의 틀에 구지봉 지역에서 신령스러운 동물로 인식된 ‘거북’을 대상화하여 구간 등으로 하여금 위협적으로 노래케 함으로써 구지봉 지역의 황천으로 하여금 구간 등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주몽이 금와의 동부여에서 남하하여 송양의 지역에서 다툰 때, 해원(蟹原)의 들에서 흰사슴을 잡아 거꾸로

매달아놓고 흰사슴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송양의 땅에 이
레 동안 소나기가 내리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민간에
전하는 기우제 관련 설화 및 민속을 통해 그 속에 이러한 사유가 담겨
져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수로가 하늘로부터 알의 형태로 내려와서 그 알에서 동자로 변하고,
그 십여 일 후에 구척의 신장으로 자라 그 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는
이 과정은 『요사(遼史)』 ‘재생의(再生儀)’의 자료를 참고로 할 때, 수
로가 하늘로부터 알의 형태로 내려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신성시하
여 제의의 통해 구현한 것이며, <가락국기>는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구비문학대계』 .
『요사(遼史)』 .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 보고서』 (별곡면), 1996.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 보고서』 (은진면), 1995.
김부식, 『삼국사기』 .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 3. 20.
이규보, <동명왕편>, 『동국이상국집』 .
일연, 『삼국유사』 .
김병국, 「구지가의 일고찰」, 『성대문학』 제26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김병국,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 월인, 2000.
김성언, 「구지가재고-기우의식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3권, 동아대학교, 1988.
김열규, 「동북아 맥락 속의 한국 신화」,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성기옥, 「<구지가>의 작품 성격과 그 해석(2)」, 『배달말』 12호, 배달말학회, 1987.
오세정, 「한국 신화를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신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임재욱, 「<구지가>에 나타난 신격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이해」, 『국문학연구』 19호, 국문학회, 2009.
정호완, 「가야의 지명소 ‘감(甘)-’의 의미와 분포」, 『우리말글』 30집, 2004.

Abstract

Recognition of the heavenly gods[皇天] of the ancients and way to achieve desired -Mainly on<Gujiga(龜旨歌)>

Kim, Byung-Kuk

This paper studies the fact that the perception of the heavenly gods[皇天] in Korean mythology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and also examines the reasons why in the song Gujiga[龜旨歌] called during the birth of Suro[首露], the first ancestor of Garak[駕洛], threatening expressions, “If you don't see your head, I will roast and eat you” appear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heavenly god generally means the same thing, but at the time people also perceived it differently subjectively according to region, just as we today perceive God's personality differently according to our religion. Therefore, Suro came from the outside into the Gujibong[龜旨峯] area by the heavenly god's command and the Gujiga, which was given to the village representatives, Gugan[九干] of the Gujibong area by him is a magical song sung to the heavenly god, believed by the people who live in the Gujibong area

The Gujiga is a magical song that calls for rain to be transformed into a magical song that threatens tortoise to beg their the first king to the Gujibong area. Tortoise is recognized as spiritual animal in the Gujibong area, and Suro maked the village representative, Gugan, sing the song intimidatingly and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ir God had no choice but to do what they wanted.

This is the same as the case of Jumong[朱蒙]. Jumong, when descended south from the Dongbuyeo[東扶餘] area ruled by Geumwa[金蛙] and quarreled with him in the area of Songyang[松讓], caught a white deer[白鹿] in the fields of Haewon[蟹原], and was hanging it upside down, and threatening it to rain showers for seven days from

the sky to the land of Songyang, and I confirmed that this idea is inherent in the folk tales and folklore associated with the rituals that call for rain being come to be told to us today.

This process that Suro descended from the sky into the area of Gujibong in the form of an egg, and from that egg into a young boy, grew up to the length of Gucheok[九尺] after a dozen days, and was crowned king is to express sacredly through ancestral rites the course that Suro comes to Gujibong area and becomes king, If we refer to the data of Yosai[遼史]'s Jaesaengui[再生儀], and to express it symbolically is <Garakgukgi(駕洛國記)>

【Key words】 Gujiga, heavenly god, magic, rituals that call for rain, way to achieve desired, threatening words.